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1차)			
개최일시	2024. 1. 3(수) 17:00~20:00	회의장소	본관 대회의실
참석자 (13명)	권하은(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도재형(기획처장), 박서림(학부 총학생회장), 박예림(사범대학 공동대표), 박지혜(간호대학 공동대표), 반지민(학부 부총학생회장), 백은미(학생처장), 왕혜정(관리처장), 윤정원(한영회계법인), 이명휘(교무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전현주(대학원학생회장), 정덕유(총무처장)		
불참자 (0명)			
안건	1) 교비회계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2) 교비회계 2024학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3) 등록금회계잉여금처리원칙 의결 4) 부속병원회계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5) 부속병원회계 2024학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내용	■ 개회 - 기획처장이 위원장 선출을 제안하며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위원 전원 동의로 교무처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 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장 이하 각 위원이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다. - 위원장이 회의 녹음 절차 및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일 회의 녹음에 대하여 참석위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다. 참석위원 전원이 녹음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의 녹음을 개시하다. - 위원장이 회의 개최에 앞서 위원 위촉 시 안내 되었던 차기 회의 일정(1/4, 목, 오후5시, 본관 대회의실)과 함께 참석을 안내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차 회의가 1차 회의 다음 날 잡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고, 예산팀장이 회의 일정, 안건 및 자료 사전 제공에 대한 법적 기한을 만족시키기 위해 위원들이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고 모든 위원이 참석 가능한 날짜로 확정된 부분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연이은 등심위 개최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학생요구안에 대해 논의하고 반영할 시간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추가 등심위 개최 가능 여부를 확인하다.		

- 예산팀장이 당해연도 추경예산(안)과 차년도 예산(안)이 완성되는 시기, 등록금 시스템 작업 및 납부일정, 회의 관련 사전 안내 기한을 감안하여 가능한 많은 위원 분들이 참여 가능한 일정으로 고려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연속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동결을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적인 논의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여부를 확인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인상이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을 가정하고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등록금 1차 납부 이후 차액 납부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야하고, 장학금액도 변동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도 여러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고, 등록금이 확정되고 안정적인 등록금 납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요구안에 대한 논의 없이 등록금이 책정된 이후 학생들의 요구안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타 대학 대비 등심위가 적은 횟수로 촉박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신입생 등록금 납부 일정과 관련된 부분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신입생 등록금 납부 일정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답하고,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11, 12월 등록금 책정 심의도 고려될 수 있지만 학생위원 임기 시작이 1월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새 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새로운 학생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우려점도 있음을 말하다. 이에, 학생위원 내 논의가 선행된 후 필요성에 대해 4월 등심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일정 반영에 고려하겠음을 덧붙여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1, 12월의 등심위 진행과 관련하여, 차년도 예산이 계획되기 전에 등록금 책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9월부터 해당 기간까지의 집행 내역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당해연도 추경예산 및 차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되며, 12월 정도에는 각 기관에서 편성한 예산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학생위원의 의견을 전달하면 12월 진행이 고려될 수 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본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다음연도에 대한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올해 등록금 책정에 대한 학생 요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해당 요구안의 내용 중 이미 예산에 편성된 것들도 있으며, 편성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집행의 관점에서 바로 실행하여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의결 안건이 식은 4월 등심위에서 구

체적으로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하다.

- 덧붙여, 예산팀장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고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여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은 학생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 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생 장학금, 교육과 연구 투자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하고, 본 안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다면 요구안 관련하여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며 안건 보고 진행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회의 직전 2시간 전에 사전열람이 진행될 때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어왔음에도 올해도 동일하게 2시간 전에 진행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현실적으로 자료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여 불가피하게 2시간 전에 진행됨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외부 전문가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학생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인지 위촉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외부 전문가 위원에게 위촉 당시 학생위원과의 민심 자리가 있었는지 질의하다.

- 외부 전문가 위원이 학생위원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음을 답하고, 예산팀장이 학생위원과 협의된 사항 안에서 회계법인이 가장 바쁜 일정임에도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주실 수 있는 분을 어렵사리 모신 점을 부연 설명하다.

- 덧붙여, 기획처장이 2023년 학생위원들과의 협의와 만남을 통해 변경 위촉 진행된 점을 설명하고, 외부 전문가 위원 관련 협의사항에서 대해서는 회의록에도 기록되어있음을 언급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과 협의된 외부 전문가 위원의 조건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관련하여 추후 자료로 답변하겠음을 말하다.

-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전 예산팀장에게 회의록 작성 일정 안내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공개해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위원장이 회의록 확인 서명 시 전원 자필 서명과 더불어 대표위원 3인이 간서명 필요성을 설명하고, 위원장과 교직원위원을 대표하여 기획처장, 학

생위원을 대표하여 학부 총학생회장을 회의록 간서명 대표위원 3인으로 호선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 위원장이 총 재적위원 13명의 위원 중 참석위원 13명으로 과반수가 참석하여 회의 개최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 회의내용

I. 교비회계 예산(안)

1. 교비회계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
2. 교비회계 2024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3.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의결

- 위원장이 교비회계 예산 전체 보고 이후 질의응답 진행을 제안하고, 기획처장에게 2023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2024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2023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2024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덧붙여 상세히 보고하고,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설명하다.

- 위원장이 교비회계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과 2024학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수입에서 대학원 입학금, 수업료가 모두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2차 회의 안건인 등록금 인상이 부적합하다는 의사를 전달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대학원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폭이 최대치에 가까운데 학생 의견을 확인하고 책정된 부분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심위가 학생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의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증가한 부분은 대학원 편제 조정 및 충원을 상승으로 인해 학생 수 증가가 반영된 부분이며, 현 재정상황에서 학생 수에 따른 일시적 수입 증가만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코로나 영향으로 등록금 수입이 축소되었던 전 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등록금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등록금 수입이 높은 수준은 아님을 추가 설명하다.

덧붙여, 법적 등록금 인상 상한은 5.64%이지만 학부는 동결을 유지할 예정이고, 타 대학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학원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해왔음에도 본교는 계속적으로 동결해왔고 2024학년도 재정적 한계 상황에서 고심 끝에 책정된 안임에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타 대학의 경우 동결을 유지하거나 2% 수준의 인상폭으로 알고 있으며, 대학원 충원을 상승으로 대학원 수입이 증가한 상황에서 4% 인상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닌지 확인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원 교육연구 활동에 대한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였을 때 5.64% 법적 상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나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4% 수준으로 조정되었음을 설명하며, 자세한 사항은 2차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에서 법인전입금 수입 감소 사유를 묻고, 이전 등심위에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의 책무성에 대해 언급해왔음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법인전입금이나 본부 차원의 기부금 확대가 아닌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하다.

- 예산팀장이 법인 전입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산식에 의거하여 산출되며, 인건비 예산의 변동에 따라 연동되어 감소했을 뿐 법인에서는 법적 의무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덧붙여,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학생 요구안 등을 고려하여 법인, 병원,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입금 증액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2023학년도는 산학협력단 전입금이, 2024학년도에는 병원 전입금이 증액되었음을 부연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법인전입금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학생위원들의 요구 전후 예산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법인 운영 관련 사항은 학교 예산팀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긴 어려우나 지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 우선적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법인에서 수익 확대를 위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을 전하고, 추후 법인 담당자가 등심위에 배석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법인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심위 내규 상 발언권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교직원, 학

생, 관련 전문가'가 아닌 법인에서 배석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에서 전입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에도 전입금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법인에서 수익성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며, 등심위 내규 상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에 따라 법인 배석을 요청한 부분임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 요청 시 법인으로 문의하여 자료를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연구비, 연구관리비는 어떤 지출 내용이 포함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해당 계정과목은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집행되는 항목들을 의미하며, 연구 인건비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주된 부분이고 그 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계기구 구입은 유형고정자산, 연구실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관리비나 건축물관리비, 관련 연구교수,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교인, 직원 보수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음을 부연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활동이나 대동제 축제 관련 지원에 대해서도 학생 요구가 많은데 학생지원비에 해당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에 학생지원비가 증액된 부분이 관련성이 있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본교 대동제 총 경비의 절반은 학생회비와 프로모션을 통해 충당되고, 절반을 학교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 2024학년도에는 2023학년도 대비 소폭 증액하여 편성되어 있음을 답하고, 올해 총학생회에서 상세한 프로그램이 계획된 이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2024학년도 예산(안)에서 연구비가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학술연구 활동이 어려웠던 부분이 2023학년도 전면 대면 수업과 함께 해소되면서 학술대회나 세미나 개최, 참석 등 연구과제 수행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 영향이 있었으나, 2024학년도에는 이전 수준으로 예상하고 보수적으로 감액 편성한 부분이며 연구지원이 축소된 부분은 아님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기계기구 계정이 2023학년도 예산 대비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교내 연구기관인 뇌융합과학연구원에서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에서 긴 시간 동안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 기계를 구입한 부분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본교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수입을 확보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기계기구 투자가 반영된 부분임을 설명하다. 덧붙여, 학생들의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불편 상황을 인지하고,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및 여러 재원을 모아 유관부서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공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원 마련이나 여러 절차 확인 과정 등에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 반영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가 고민하고 있음을 전하다.

- 위원장이 무선 네트워크는 큰 예산을 소요하는 사업으로 여러 재원 확보를 통해 수업 진행이 많은 학관, ECC 등 6개 공간을 우선적으로 진행 중이며, 학생들이 3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2월까지 최대한 구축 예정임을 부연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재학생들이 성적 장학금 확대, 소득분위가 높아도 수혜가 가능한 장학금 제도 마련 등 장학금 관련 요구가 많았음을 언급하며, 2024학년도 장학금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본교의 경우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가계곤란 장학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23년 기준 국가 장학금과 더불어 이화복지 장학금을 통해 소득분위 5분위 학생들까지는 등록금 100%, 7~8분위 학생들까지는 등록금 80% 수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타 대학과 비교해도 5분위까지 100% 지급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으며, 2023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서울 주요 사립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을 비교했을 때, 높은 순위에 해당하며 주요 대학 대비 장학금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있지 않음을 부연 설명하다. 덧붙여, 장학금 다양화 요청에 따라 중앙장학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각 단과대학에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단과대학 특성화 장학금', '미래설계 장학금', '해외연수 장학금' 등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한다면 중앙장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반영할 수 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재학생 설문을 토대로 실제 소득분위는 높아도 가정사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학업지원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아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다.

- 학생처장이 해당 부분을 학교에서도 고려하고 있으며, 긴급한 개인 사정으로 소득분위는 높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음부즈만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장학금은 학생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지급될 수 있는 장학금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최근 커뮤니티 등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로 옴부즈만 장학금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학교 차원에서도 장학금 홍보가 더 활성화 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다.

- 학생처장이 공지사항을 통해 장학복지팀에서 열심히 알리고 있으나, 기탁장학금 등 본교 장학금이 많아서 모든 장학금에 대해 학생들이 확인이 어려운 영향도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학부 총학생회장이 공지사항 외 다른 홍보 방안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실질적으로 대학원은 조교 장학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다양한 장학금의 혜택이 체감되지 않음을 말하고, 장학금 예산 중 대학원 장학금 비중을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재학생 수를 고려하였을 때 학부 대비 대학원 역시 적지 않은 수준임을 대학원 장학금 예산액과 함께 답하고, 국가장학금 등 대학원생이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매해 꾸준히 대학원 장학금도 증액하는 추세이며 실질적으로 전일제 박사과정생은 거의 10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하여 등록금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나.

- 대학원 학생회장이 석사과정생이 더 많은 부분도 고려하여 석사과정생을 위한 장학금 확대를 요청하고, 학생처장이 실질적으로 대학원 장학금은 석사, 박사, 통합과정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를 이루므로 특별히 박사과정생에 지원이 편중된 부분은 아님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4학년도 교원 보수 증액와 관련하여, 교원 신규 임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위원장이 퇴임교원으로 인한 강의 결손이 없도록 보충하고 신설 단과대학의 충원도 계속적으로 진행 및 계획하고 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3학년도 인공지능대학 전임교원이 1명이었는데 추가 충원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위원장이 2명 이상 충원되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공지능대학이 신설될 시기에 전임교원 충원에 대한 요구 및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관련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해당 분야는 새로운 분야로 적극적으로 교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적합한 교원을 임용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이해를 구하고, 그럼에도 충분한 역량을 갖춘 교원을 임용하기 위해 노력하여 이번 학기 신규임용이 진행되었음을 답하다. 덧붙여 적은 보수로 최종적으로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을 설명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ECC 승강기 점검으로 인한 사용제한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 학생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노후 승강기 교체 예산 배정에 대해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승강기는 10년 단위로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1년 주기로 건물별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함을 설명하다. ECC의 경우, 2008년 신축되어 16년차임에도 사용빈도가 높고 유리로 제작되어 여름에 복사열로 인한 급속한 부품 노후화로 고장율이 높아 2024학년도 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업체가 지정되었고 7월부터는 사용 가능할 것임을 안내하다. 덧붙여, 비규격 사이즈에 유리 제작 등으로 인하여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3대의 승강기 전체 교체 여부와 해당 부분이 관리운영비의 안전관리비 예산 확대와 관련 있는 부분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전체 교체될 예정이며 관리운영비에는 냉난방기 순차적 교체 계획까지 반영되어 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화상점 카페 축소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이수 매니지먼트에서 운영 가능한 범위 내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답하다.

- 위원장이 추가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교비회계의 2023학년도 추경 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교비회계의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안건 1] 교비회계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단위: 억 원)

구분	2023추경	2023예산	예산 대비 증감
수입	4,498	4,315	183
지출	4,498	4,315	183

- 이어, 위원장이 교비회계의 2024학년도 예산(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위원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교비회계의 2024학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안건 2] 교비회계 2024학년도 예산(안): 승인

(단위: 억 원)

구분	2024예산	2023추경	추경 대비 증감
수입	4,384	4,498	-114
지출	4,384	4,498	-114

- 교비회계 관련 마지막 안건으로 위원장이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안건 3]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승인

※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 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해당 이월 사유에 따라 등록금회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이월의 경우 연구학생경비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세 번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등심위에서 해당 학년도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이 선행되기 이전에 등심위의 비민주적인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나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사 표현임을 부연 설명하다.

II. 부속병원회계 예산(안)

1. 부속병원회계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
2. 부속병원회계 2024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2023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4학년도 예산(안) 심의를 제안하여 의료원 전략기획본부부장, 전략기획팀장, 예산파트장이 배석하다.

- 전략기획팀장이 부속병원회계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을 의료원 및 양 병원에 대해 차례로 보고하다.

- 전략기획팀장이 이어 2024학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다.

- 위원장이 부속병원회계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전입금 증액을 위한 병원의 계획을 질의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병원에서도 최근까지 서울병원 신설 등의 어려움을 겪었기에 전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2023학년도부터는 노력하여 전출금을 늘리기 시작하여 2024학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하여 전출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설명하고, 수익성이 더 높아진다면 앞으로 더 많이 전출할 예정임을 밝히다.

- 총학생회장이 의료원에서 전입금이 없었을 때에는 해당 비용이 어떤 재원으로 충당되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법인전입금과 달리 병원전입금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대학의 재정에 도움을 주시고자 병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 금액을 전출해왔으며 병원에서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수익 확대에 따라 병원전입금도 증액 될 것을 기대한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추가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부속병원회계의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부속병원회계의 2023학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안건 4] 부속병원회계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단위: 억 원)

구분	2023추경	2023예산	예산 대비 증감
수입	7,125	6,747	378
지출	7,125	6,747	378

- 이어, 위원장이 부속병원회계의 2024학년도 예산(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부속병원회계의 2024학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안건 5] 부속병원회계 2024학년도 예산(안): 승인

(단위: 억 원)

구분	2024예산	2023추경	추경 대비 증감
수입	7,275	7,125	150
지출	7,275	7,125	150

Ⅲ. 기타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안과 관련하여 등심위 구조 관련 사항은 4월에 진행하되, 그 외 부분에 대해 예산 편성 및 등록금 책정이 논의되는 1월 중에 진행되도록 추가 개최 혹은 2차 회의에서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하다.

- 예산팀장이 1월에는 논의되어야 할 안건이 많은 부분들을 감안하여 촉박한 시일 내에 급히 진행하기 보다는 1차 회의에서 확인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 학생위원들이 요구안에 대해 우선순위 등을 조정한 뒤 다음 등심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가 아닌 2월 중 학생과 학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관 기관과 함께 학생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성을 고려하여 해결해가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안이 등심위와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별도 협의체보다는 등심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다. 이전에는 2차 회의에서 안건 상정하여 학생 요구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던 부분을 언급하며 안건 상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 요구안 수용과 등록금 책정이 크게는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각 요구안 별로 예산과 별개의 부분도 있고 본 회의체 내에서 모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학생위원 내에서 논의하여 정리한 내용을 학생처로 전달하면 각 지원 부처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등심위는 현재 학생요구안 전달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별도 회의체를 통해 논의되기를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가 책정된 등록금이 적정 수준인지 학생들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체인만큼 학생 요구안을 논의하는데 부적합하다는 부분에 이견을 보이고, 추가 개회가 어렵다면 2차 회의 안건 논의 전후에 학생 요구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재차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5일 전 사전 안내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음에 별도 안건 상정이 아닌 2차 회의 안건 보고 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 요구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일반대학원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으나 전문, 특수대학원의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하다.

- 기획처장이 대학원 학생회장의 부담감을 이해하지만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을 듣고, 연구하는 동질성을 가진 학교 소속 구성원으로써 학부 및 대학원 학생위원이 학생 모두를 대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 4%, 외국인 유학생 8% 인상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 전달하고, 기획처장이 타 대학의 경우 그 동안 대학원과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상안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1, 2차 등심위 회의록 열람 이후 학생의견을 수렴한 뒤 3, 4차 등심위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일정 상 어려움을 말하고, 오랜 등록금 동결로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2016학년도 대학원 1.7% 인상 당시 학생 반응을 언급하고, 덧붙여 학부 총학생회장이 타 대학과 비교하고 입학을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등록금 부담에도 어렵게 납부하고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인상이 수긍될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2024학년도 타 대학 수준의 인상율에 대한 재고려를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위원들의 의견에 수긍하고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2차 회의를 준비할 것을 답하고,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서는 2차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다.

	■ 폐회 - 위원장이 2차 회의를 1월 4일(목) 오후 5시에 개최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4년 1월 3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명휘	이명휘	위 원	백은미	백 은미
	위 원	권하은	권하은	위 원	왕혜정	왕혜정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위 원	윤정원	윤정원
	위 원	박서림	박서림	위 원	이주연	이주연
	위 원	박예림	박예림	위 원	전현주	전현주
	위 원	박지혜	박지혜	위 원	정덕유	정덕유
	위 원	반지민	반 지민			
작 성 자	예산팀 지 혜 민 (지혜민)					